

행복한 금요 편지

아버지의 유산(遺産)

박재규¹⁾

대한교육신문 발행인

잔잔한 고백성사를 하고자합니다.

상속법이 몇 차례 바뀐 것은 형제, 자녀들 간에 불협화음만 온 나라를 덮고 있는 무거운 먹구름 같다. 경제 사정들이 어려운 만큼 더더욱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인이 없는 것 같다. 큰 액수의 유산도 아닌 몇 푼을 놓고서 이전투구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더니 눈앞의 현실은 나에게도 큰 파도로 닥쳐와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우울하고 쓸쓸합니다.

머나먼 남도의 시골에서 서울까지 원정치료를 해오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등진 후에 맏이이자 장남인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서울의 몇몇 병원과 지방병원을 오가시면서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결국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1차 내과치료 등을 거치고 난 이후, 척추수술이 문제였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희망하셨기에 다소 무리한 척추수술을 해드렸는데 세월의 무게와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먼 길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생각해보니 저는 효자가 아닌 불효자였습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평소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현실적 의견에 너무나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 하지말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매장 아닌 화장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으며, 그 이유인즉 동생들은 바쁜 현대인 들이 어떻게 시골까지 찾아가 성묘를 할 수 있냐는 주장이라서 아버지의 유언과는 맞지 않는 선산에 매장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으며,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나누자고 해서 그렇게 했으며, 모든 것을 동생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박재규 선생님은 현재 대한교육신문 발행인과 역사교육문화연구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씻을 수 없는 불효자가 된 것이다. 이제 생각하니 옳은 일이면 소신껏 실천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늦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는 불효한 이자식의 맘 헤아리시겠지요.

많지 않는 유산으로 돈 몇푼을 가져가고 안가져가고 문제는 아니었다. 큰아들인 나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울화통이 치미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식들의 채무자로 만든 자식들이 또 있을까? 기가차고 환장할 일이 바로 우리집안의 일이니 말입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몇천만원 들어가는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십원짜리 하나도 안내놓던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을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가져간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형제간의 우의를 버리고, 경제적 동물이 되었는지 그저 암담하기만 한 현실에 신문인의 한사람으로서 비애를 몸속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태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기여할까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대재벌의 상속싸움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한구석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생각해 보니, 진정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으며, 이와 같은 현실에 고민하는 자신이 너무 미워 한잠도 못 이루고, 장례식장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무언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는듯하였다. 돈 앞에는 형제자매도 피도 눈물도 없는 오늘의 배금주의 현실을 깨닫게 한 아버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픔 가슴을!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며 효(孝) 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겠지!

아버님을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오니 눈부시게 파란 5월 하늘은 이렇게 중얼거리는 듯하였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 씩씩하다. 아버님 불효자를 용서해주시고 돈도 필요 없고 형제간 싸움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행복하세요. 이 불효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비읍니다.

5월의 어느 날 불효자드림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